

# 韓國 食料消費패턴 變化의 分析(1975-1997年) (1)

## — 日本과의 比較를 中心으로(2) —

鄭 英 一 · 李 京 美

본 연구에서는 1975-1997년의 기간 동안 관찰되는 한국 식료소비의 변화추세를 추적하고,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기존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추세를 비교·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식료소비량의 안정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식료소비 선택에 있어 가격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은 '고급화' 경향이 주도했던 시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이후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약간의 시차를 수반하면서도 일본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머리 말

1960년대 초반 한국은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sup>(3)</sup>에 불과한 빈곤국가였으며, 국민의 식생활은 주곡인 쌀의 부족으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소요량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식료 선택 행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식료소비지출은 식료의 양적 확보를 지향하게 된다. 1960년대 이래의 고도성장에 따라 1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식료소비는 양적인 확대를 거듭한다. 주곡 자급이 달성된 1977년 이후에도 양적 팽창을 계속하던 식료소비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양적 확대가 둔화되는 가운데 식료구성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등 질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식료소비구조 또한 변화한다.

한국과 비슷한 식생활패턴을 지니면서 보다 이른 시기에 고도성장기를 거친 일본의 경험을 보면, 식료소비는 196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식료소비의 양적 확대와

- 
-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 일본과의 비교를 위해 연구과정의 작업자료를 제공해주신 荏開津典生, 時子山ひろみ 양 교수께 감사한다.
  - (3) 한국은행의 국민소득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NP는 1961년에 82달러, 1965년에 10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함께 그 내용도 풍부해졌으며, 근년에는 식료소비의 '成熟'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식료소비의 성숙이란 식료소비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며 맛과 품질, 다양성과 간편성 등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 상태를 일컫는다.<sup>(4)</sup> 일반적으로 성숙 단계의 첫번째 특징으로 식료소비 수준의 추세적 변화의 약화 내지 소멸을 들고, 두번째 특징으로 소비자의 식료 선택 행동에 있어 경제적 요인, 즉 가격 및 소득제약 요인의 약화현상을 꼽는다(秋谷重男·吉田忠(1988), 時子山ひろみ(1994, 1999),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 외). 일본의 경우 식생활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이후 나타나는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추세에 대해서 경제적 요인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흥미로운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성숙 단계 이후의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추세에 대해 '高級化,' '簡便化,' '多様化' 및 '健康·安全指向' 등 네 가지 범주로 집약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이다(時子山ひろみ(1999),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 외).

한국의 경우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있어 왔다(사공용·최지현(1995), 최지현·이계임(1996) 외 다수).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의식의 변화, 세대구성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여성취업비율의 증가와 같은 취업구조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식료소비의 변화추세를 추적하고 그 변화추세가 가격과 소득 등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식료소비 변화추세의 기본방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도성장기 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식료소비 변화추세의 기본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식료시스템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농업을 비롯한 식품관련산업의 대응 방향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국민 식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식료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식료소비의 변화추세를 경제적 요인 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소비자의 식료소비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소비지출과 상대가격변화간의 관계 분석을

(4) 時子山ひろみ·荏開津典生(1998, 제2장)는 식료소비의 성숙을 2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영양소요량의 충족)에서 시작하여 포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서 1인당 식료소비량의 급증을 특징으로 하며, 제2단계는 소비되는 식료의 총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음식비 지출이 완만한 증가를 계속하는 가운데 식료단가가 높아지는 식료소비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라는 질적 전환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이 중 주요 관심대상은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2단계이며, 본 연구에서도 성숙의 제2단계에서 나타나는 식료소비패턴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통하여 식료소비 선택 행동에 대한 가격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검토한다. 소득 제약의 경우 식료수요의 소득탄력성과 1인당 식료소비량의 추세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국민 1인 1일당 식사에너지供給量(DES)의 추세변화 및 품목별 실질지출의 변화추세의 검토를 통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의 식료 선택 행동이 양적 확대 지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의 식료 선택 행동에 있어 소득제약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관찰되는 한국의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추세를 추적하여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일본의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1975-1997년의 『都市家計調査』를 기초자료로 하여 1인당 품목별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추세를 추적하고, 품목별 실질지출의 변화와 상대가격의 변화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가격요인 영향의 추이를 분석한 뒤, 이상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 기간 중에 나타난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파악하기로 한다. 아울러 일본의 기존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식료소비구조의 변화추세를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 2. 利用資料와 分析方法

### 2.1. 統計資料의 檢討

일본 식료소비의 변화추세를 고찰하고 있는 기존 연구(時子山ひろみ(1999),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 등)에서는 日本總務廳이 발간하는 『家計調査』를 기초자료로 하여 200여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찰 대상 기간의 품목별 소비량의 추세 및 가격 추세의 변화방향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품목별로 본 식료소비의 변화추세를 '고급화,' '간편화,' '다양화' 및 '건강·안전지향' 중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일본의 『家計調査』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품목별 소비량과 가격 자료가 발표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품목별 지출액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만으로는 일본의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소비량의 추세적 변화방향과 가격의 추세적 변화방향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실질지출액의 추세적 변화방향과 품목별 상대가격 변화방향과의 관계 검토를 통해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파악하는 것

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먼저 품목별 실질지출액의 추세적 변화방향을 파악하고자 『도시가계조사』의 품목별 경  
상지출액을 불변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1995=100)를 이용하였다. 『도시  
가계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의 기본품목 중 식료품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치를 보  
이고 있어 상당수 기본품목별 소비지출액의 실질화가 가능하였다. 한국 『도시가계조사』의  
기본품목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조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  
한 결과 19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시가계조사』의 165개 기본품목(외식관련 및 빵과자  
류 품목과 식품관련서비스 제외) 중 119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sup>(5)</sup>

한편 상대가격의 변화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분류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재구축하  
였다. 이는 『도시가계조사』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편제하되, 소비자물가지수의 기본품목별  
가중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중분류 편제에 상응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재구축하였다. 이는  
중분류 범주 내에서 각 기본품목의 상대가격의 변화방향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된다.

## 2.2. 分析方法의 概要

먼저 『도시가계조사』의 전국 전세대 평균의 품목별 1인당 실질 식품 소비지출의 변화추  
세를 파악하기 위해 1975년에서 1997년까지 23년간의 품목별 실질 식품 소비지출(1995=  
100) 시계열의 3개년 이동평균치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따라서 검토대상기간은 1976년에서  
1996년의 21년간이며, 전기간을 5년 간격으로 나누어 1976-1981년, 1981-1986년,  
1986-1991년, 1991-1996년 등 4개 기간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위의 방식에 따라 구축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119개 분석대상 품목에 대해서 1인당  
실질소비지출( $q_t$ )의 동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품목의 趨勢의(trend) 변화를 다  
음의 식을 이용한 연평균성장률  $\beta$ 의 추정을 통하여 파악한다.

$$\log q_t = \alpha + \beta t$$

이와 같이 추정된  $\beta$ 의  $t$ 값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그 품목의 1인당 실질소비지출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추세적 변화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품목별 실질소비지출  
의 추세를 토대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품목,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품목, 그리고 일정한  
추세적 변화가 없는 품목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품목별 가격의 상대적 변화를 파악한다. 이는 『소비자물가조사』의 기본분류별

(5) 『도시가계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의 식료품 부문의 기본부문 대조 결과 및 제외품목에 관해  
서는 <附表 1> 참조.

〈表 1〉 1991-1996년의 '곡류 및 식빵' 價格과 1人當 實質消費支出의 變化

상대가격 실질소비지출	하 락	추세 없음	상 승
감 소	당면(A <sub>11</sub> )	쌀(A <sub>12</sub> )	팥(A <sub>13</sub> )
추세 없음	(A <sub>21</sub> )	라면류, 밀가루 (A <sub>22</sub> )	떡, 식빵, 콩 (A <sub>23</sub> )
증 가	보리쌀, 찹쌀, 국수(A <sub>31</sub> )	(A <sub>32</sub> )	(A <sub>33</sub> )

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품목별 물가지수를 각 품목이 속한 중분류 비목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파악한다. 즉 품목별 가격의 중분류 평균 가격 변화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는 품목, 상승추세를 보이는 품목, 확실한 추세적 변화가 없는 품목으로 분류한다.

이상 두 분류를 조합하면 예컨대 1991-1996년의 '곡류 및 식빵'에 속한 품목에 관하여 〈表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표에서 A<sub>31</sub>란에 해당하는 보리쌀, 찹쌀, 국수 등은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는 구입가격 변화의 방향과 정합적이다. 마찬가지로 A<sub>13</sub>란에 해당하는 팥은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변화도 구입가격의 변화와 정합적이다.

그러나 다른 난에 속한 품목 중 실질소비지출이 변화한 품목은 그 변화의 방향이 가격 변화와 정합적이지 않다. 따라서 변화추세의 설명을 위해서는 가격요인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A<sub>12</sub>란의 쌀은 구입가격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화는 구입가격의 변화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表 1〉에는 해당 품목이 없지만, A<sub>33</sub>란과 같이 구입가격 상승과 실질소비지출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도 가격효과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질소비지출의 추세적 변화와 상대가격의 변화추세를 조합하면, 실질소비지출의 변화를 가격효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가격효과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효과 이외의 요인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증가, 가정내 조리비용의 상승, 선호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급화,' '간편화,' '다양화' 및 '건강·안전지향' 등으로 범주화하여 해당 품목의 실질소비지출 변화의 기본요인

을 파악하려고 한다.<sup>(6)</sup>

### 3. 經濟成長과 食料消費構造의 變化

#### 3.1 食事に너지供給量(DES)의 推移

식생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초적 지표는 식료소비의 양적 변화, 특히 1인당 식료소비량의 변화이다. 그런데 소비되는 식료의 종류가 매우 많고 품목별 계량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식료소비량을 표시하는 공통척도로서는 국민 1인 1일당 식사에너지공급량(Dietary Energy Supply: 이하 DES)이 널리 이용된다.<sup>(7)</sup> DES는 국민 1인이 1일 동안 식사를 통하여 공급받는 에너지량(kcal)을 추계한 것으로, 『식품수급표』에서 파악되는 1인당 공급식품량을 영양소로 환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端境期の 곡물부족으로 인한 식료 공급 불안정에서 벗어나면서 1960년대 말에는 DES가 약 2,300kcal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쌀 자급이 달성된 1977년 이후 DES는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가 뚜렷한 바, 1977-1987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1.3%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 1988년 이후에도 DES의 꾸준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으나 그 증가세는 보다 완만해지고 있으며(연평균 0.5%),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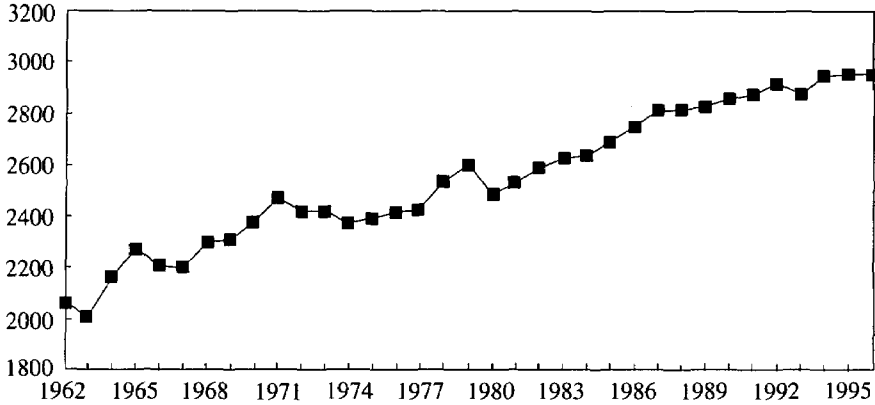
이상에서 검토한 DES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할 때 한국은 1960년대말 이후 생활에 필요한 식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식료 소비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飽食段階를 거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추세가 크게 둔화되는 대신 질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의 기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1955년경 戰前 수준(1934-

(6) 기본요인의 각 범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4. 식생활변화의 기본방향 : ‘고급화’ · ‘다양화’ · ‘간편화’ 및 ‘건강 · 안전지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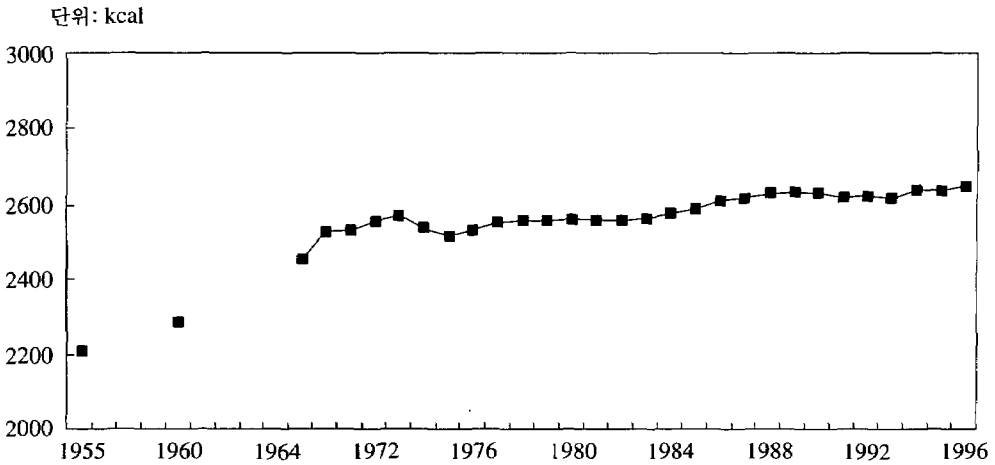
(7) 식사에너지 섭취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자료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가 있다. 『국민영양조사』는 가정식에서 실제로 섭취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식품수급표』와 『국민영양조사』의 두 자료 중 어떤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외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식을 통한 식품섭취량이 제외된 『국민영양조사』로부터 얻는 섭취 에너지량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수급표』의 DES를 채택한다. 『국민영양조사』의 섭취 에너지량 수준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최지현 · 이계임(1995) 참조.

(8) 時子山ひろみ · 荏開津典生(1998)의 단계 구분 기준을 원용한다면 한국의 식료소비 성숙의 제1단계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며, 포식단계를 거쳐 식료소비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제2단계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資料: 이경미(1999)에서 발췌.

〈그림 1〉 韓國의 1人 1日當 食事に너지 供給量(1962-1996年)



資料: 『食料需給表』, 各년도

〈그림 2〉 日本의 1人 1日當 食事に너지 供給量(1965-1996年)

1938년 평균 2,020kcal)을 회복한 이래 DES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이후 DES의 증가는 거의 정지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DES의 추이에 따르면, 1955년경에 식료부족이 해소된 후 1970년대 중반까지 상당한 양적 확대를 보였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식료소비의 양적 증가가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식료소비가 1970년대 중반을 경계로 성숙의 1단계를 지나 제2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3.2 品目別 實質消費支出의 趨勢

〈表 2〉는 2절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1976-1996년의 21년 동안 품목별 실질소비 지출의 변화추세 집계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추세를 파악할 수 없어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여기서 관찰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개별식품의 1인당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에 있어 19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지출이 증가하는 품목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지출이 감소하는 품목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가 꾸준히 진전되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실질소비지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품목수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81-1986년에는 58.4%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91-1996년에는 41.8%까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하는 품목의 평균소비증가율도 점차 하락하여 1976-1981년의 12.3%에서 1991-1996년의 기간에는 7.2%까지 저하한다. 한편 1인당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식품의 품목수 비율은 그것이 증가하는 식품과는 반대로, 1986-1991년의 기간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

〈表 2〉 韓國의 品目別 實質消費支出의 變化趨勢 集計結果(1976-1996年)

		증가추세	평균	추세없는	감소추세	평균	합계
		품목		증가율 (%)	품목		
1976-1981년	품목수	47	12.3	20	16	-11.4 <sup>1)</sup>	83
	비율 (%)	56.6		24.1	19.3		100.0
1981-1986년	품목수	52	10.2	24	13	-5.4	89
	비율 (%)	58.4		27.0	14.6		100.0
1986-1991년	품목수	53	10.5	19	23	-5.2	95
	비율 (%)	55.8		20.0	24.2		100.0
1991-1996년	품목수	46	7.2	34	30	-6.2	110
	비율 (%)	41.8		30.9	27.3		100.0

註: 1) 1976-1981년간 감소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몇몇 품목의 큰 폭의 감소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무지, 보리쌀, 어개통조림, 콩치 등과 같은, 음식비 지출에서 점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인 바,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 각 기별 품목수 합계가 분석대상 품목수인 119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5년에 와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식료품 기본품목에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지출액이 미미하여 기본품목으로 편제되지 못한 품목이 상당수 있음을 반영한다.



하는 경향이 보인다. 1981-1986년 동안에 14.6%까지 떨어지는 감소추세에 있는 품목수의 비율이 1991-1996년 동안에는 27.3%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1인당 실질소비지출 변화에 있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품목수의 비중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991-1996년에는 30.9%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품목별 실질소비지출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에서도 식생활의 '성숙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식품의 품목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질소비지출의 추세적 변화가 없는 식품의 품목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성숙화'의 첫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소비량의 안정화 경향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소비지출의 변동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소비량의 안정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식료 소비량의 안정화 경향이 한국보다 한층 이른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소비량의 안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식생활이 성숙단계로 접어든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時子山ひろみ(1999)에 따르면 성숙의 제2단계로 진입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비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비율이 큰 폭으로 저하(28.3%)하는 반면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혹은 불변인 품목의 비율은 각각 41.7%와 30.0%로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 1992년까지 지속되어,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식품의 비율은 한층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는 식품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9)</sup> 또한 평균 증감율로 표시되는 소비량의 변동폭도 상당히 줄어

〈表 3〉 日本의 品目別 消費량의 變化趨勢 集計結果(1963-1992年)

(단위: %)

	증가품목	감소품목	불변품목	합계	품목수
1963-1968년	53.1(6.6)	28.3(-3.9)	18.6	100.0	113
1969-1974년	45.8(5.8)	35.0(-3.9)	19.2	100.0	102
1975-1980년	28.3(3.4)	41.7(-3.9)	30.0	100.0	120
1981-1986년	26.0(3.3)	46.3(-2.6)	27.6	100.0	123
1987-1992년	21.5(2.6)	51.4(-3.3)	27.1	100.0	107

註: ( )안의 수치는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증감율이다.

資料: 時子山ひろみ(1999, p. 22)의 <表 1-1>에서 발췌.

(9) 소비량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식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본 식생활의 '성숙화'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時子山ひろみ(199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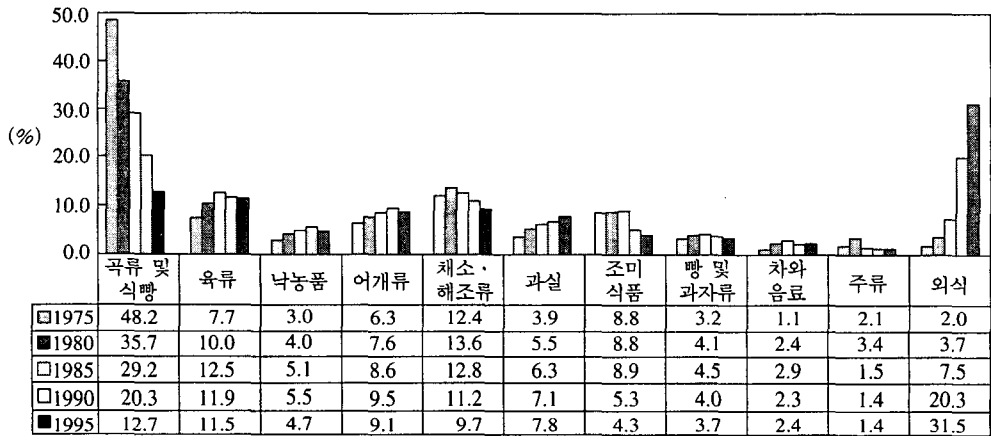
“식품 가운데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인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기간 중의 소비량 감소의 원인을 소득에서 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 밖의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득 제약 때문에 구입량이 제한되었던 품목의 경우에는 소득 상승에 따

들고 있다.

### 3.3 費目別 飲食費構成의 變化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은 DES의 추세나 품목별 실질소비지출의 추세로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가 둔화되고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식료소비의 변화가 질적 전환기로 이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1인당 실질음식비 지출총액은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의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즉 1975-1987년 동안의 1인당 실질음식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3.6%인 데에 반해 1987-1997년 동안은 4.5%에 이른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같은 기간 식료 소비의 질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비목별 음식비 구성의 변화를 통해 식생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은 1975-1995년 동안 한국의 비목별 음식비 구성 변화를 5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곡류 및 식빵,' '채소 및 해조류,' '조미식품,' '주류' 등 4개 비목은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다.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증가하던 '육류'와 '낙농품'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그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거나 오히



註: 비목분류 가운데서 '기타식료품'과 '식품관련서비스'는 그 비중이 미미하여 생략하였다.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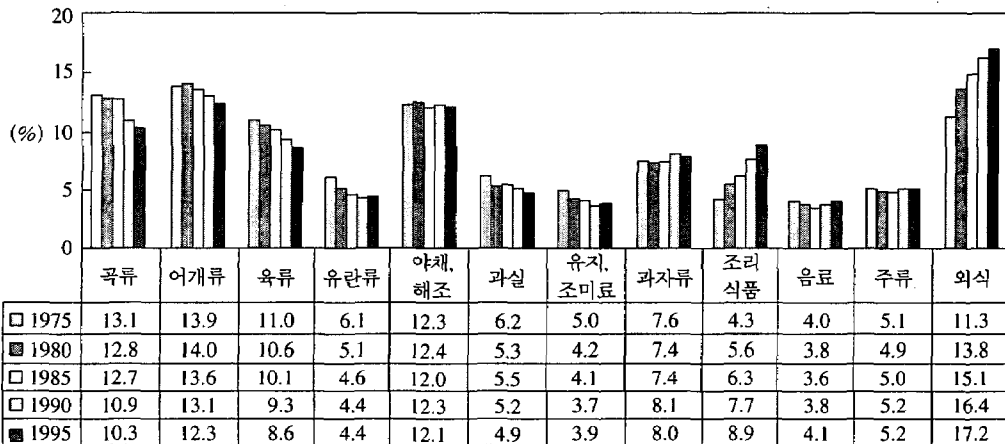
〈그림 3〉 韓國 飲食費 構成의 變化(1975-1995年)

라 소비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증가추세가 정지하는 한편, 소비량이 감소한 품목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소득 이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량의 증가에 관해서나 감소에 관해서나 그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소득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식품소비량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이 저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성숙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려 감소한다. '어개류' 및 '과실'의 구성비는 1975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75-1985년까지는 주식인 '곡류 및 식빵'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육류' 및 '낙농품,' '어개류,' '과실'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가 증가하는 부문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11개 비목의 대부분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구성비가 증가하는 비목은 '외식' 뿐이다. 1985년까지도 외식의 구성비는 7.5%를 접하는 데에 그쳤으나 1995년에는 30%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 추세에 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질음식비 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외식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품목별 1인당 실질소비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식형태의 식료 소비가 얼마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식생활의 '外部化(혹은 서비스화)' 라고 부른다.<sup>(10)</sup>

비목별 음식비 구성비의 변화로 파악할 때 한국의 식생활의 '외부화' 추세는 일본의 경우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그림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된 <그림 4>를 보면 일본의 가구원 1인당 식료소비액에서 차지하는 외식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비중은 1995년 현재 17.2% 정도이다. 식생활의



資料: 總務廳, 『家計調査』(全國全世帯), 各년도.

<그림 4> 日本의 飲食費 構成의 變化(1975-1995年)

(10) 조리와 식사 장소가 가정 밖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에서 외부화인 동시에, 조리라는 서비스를 가족 이외의 주체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서비스화이다.

외부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 비해 한국의 외식비 비중이 이렇게 까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현시점에서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통계 작성상의 문제일수도 있고 어쩌면 실제로 한국이 일본보다 외부화가 더 진전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통계의 작성과정 등에 대한 비교·검토 등을 통해 해명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어쨌든 일본의 경우도 비목별 음식비 구성비의 변화로 보면 식생활의 외부화 경향은 명확히 드러난다. 1975년 이후 20년간 12개 비목 중 10개의 비목은 감소 내지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조리식품과 외식 등 2개 비목에서만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조리식품과 외식비가 음식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현재 각각 4.3%와 11.3%에서 1995년에는 8.9%와 17.2%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외식비는 음식비 지출 중 최대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 3.4 食料消費 品目 構成의 變化

식료소비 품목 구성의 변화는 식생활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시 지수품목으로 선정되는 것 중 식료품에 속하는 품목의 변화를 검토하였다.<sup>(11)</sup> 1970-1995년 기간에는 매 5년마다 6회에 걸친 물가지수 개편작업이 있었다. 그 중에서 1975년, 1985년, 1995년 등 3개 연도의 식료품 조사품목수의 추이를 <表 4>로 정리하였다.

1975-1995년 기간에 식료품의 조사품목수는 132품목에서 169품목으로 37품목이 순증가하였다. 1975-1985년까지의 10년 동안은 16품목 정도가 순증가한 반면 1985-1995년 동안에는 21품목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수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식생활의 다양화도 1980년대 후반 이후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대상 기간 중의 조사품목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외식' 부문 품목수의 급증이다. 1975년 이후 20년 동안 외식부문은 12품목이 증가하였다. 1985년까지는 1품목만이 순증한 데에 그친 반면 그 이후의 10년 동안은 11품목이나 증가하고 있다. <表 4>의 분류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 부문에서의 가공식품 품목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씨리얼 등의 곡물가공품과 과채가공품 중에서 1970년대에는 조사품목에 들지 않던 다양한 품목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녹차, 오렌지주스 등 다양한 기호식품의 등장도 눈에 띈다. 한편 1990년부터는 냉동만두와 김치가 새로 추가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

(11) 『소비자(소매)물가지수』에서는 품목별 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을 지수품목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수품목의 구성에는 품목별 소비량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하여 식료 소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表 4〉 韓國 『消費者物價調査』의 食品群別 調査品目數의 推移

食 품 군	1975년	1985년	1995년	추가품목수 (1975-1995년간)
곡 류	13	13	12	-1
육 류	4	6	7	3
유 란 류	5	4	4	-1
어 개 류	18	19	22	4
채 소·해 초	21	24	29	8
과 실	14	12	16	2
유지·조미료	19	22	18	-1
빵 및 과 자	15	15	16	1
차 와 음 료	4	11	14	10
주 류	6	8	6	0
외 식	13	14	25	12
합 계	132	148	169	37

註: 1) 1980년까지 소분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던 식품은 분류 조정에 따라 1985년 이후 타 식품군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1985년의 분류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2) 총품목수가 『소비자물가조사』의 품목수(원자료)보다 작은 것은 규격 차이에 의해 여러 품목으로 세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한 품목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3) 음료에 포함된 다방커피, 다방홍차, 다방우유 등은 외식부문으로 이동하였다.

資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물가연보』 1978, 1987.

통계청, 『물가연보』 1998.

에는 냉동핫도그가 추가되는 등 조리식품의 보급이 확대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료 소비 품목 구성의 변화로부터 식생활의 다양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간편화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간편화의 경향은 조리식품의 품목수 증가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982-1996년 동안에 식료품의 조사품목수는 141개에서 235개로 94개 품목, 비율로는 1.7배가 증가하였는데(〈表 5〉 참조), 이 기간 동안 즉석중화면, 즉석카레, 즉석수프 등이 추가되었으며, 나아가 도시락, 튀김(생선), 냉동조리 코로케 등 조리식품은 2개 품목에서 11개 품목으로 무려 9개 품목이나 증가하였다. 한편 햄버거, 피자파이 등의 외식도 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조리식품의 품목수 증가는 간편화를 지향하는 소비자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일본의 경우 조리식품은 식생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외식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리식품의 품목수 증가가 뚜렷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한국의 식생활은 아직 조리식품 중심의 간편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외식의 구성 품목수는 크게 늘어났다. 이는 비목별 음식비 구성 중 외식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과 밀

〈表 5〉 日本 『小賣物價統計調査』의 食品群別 調査品目數 推移

식 품 군	1982년	1996년	추가품목수
곡 류	10	16	6
어 개 류	30	38	8
육 류	10	13	3
유 란 류	4	8	4
야 채 해 조	36	44	8
과 실	10	21	11
유지·조미료	9	17	8
과 자 류	12	20	8
조 리 식 품	2	11	9
음 료	6	15	9
주 류	7	12	5
외 식	5	20	15
합 계	141	235	94

註: 1982년에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던 식품은 그 후 타식품군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1982년의 해당품목은 1996년의 분류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資料: 정영일·황수철(1998)에서 재인용. 원자료는 總務廳, 『小賣物價統計調査』이다.

접하게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한국의 경우 식생활의 서비스화는 조리식품과 같이 조리과정이 단순한 형태에 의존하기보다는 외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식품산업의 제조기술이 일본 등 선진제국과 같이 식품의 맛과 안전성을 보장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식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유통체계가 미비되어 있는 데에 기인한다. 즉 조리식품과 관련한 제조 및 유통 단계의 기술 수준의 낙후로 조리식품의 보급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어 식생활의 서비스화가 외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식품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경험을 통해 맛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조리식품의 소비가 확대되고 현재 비중이 매우 높은 외식 소비의 상당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최근 20년 내외에 걸친 기간의 식료 소비 구조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식료 소비의 양적 확대가 크게 둔화되면서 식료 소비 수준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그보다 10년 정도 늦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그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식생활의 외부화 경향도 두드러지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 식료소비수준이 안정화된 이후의 식생활에는 어떤 변화

도 일어나지 않을까?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하였을까? 이하에서는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4개 범주로 나누어 식료소비의 변화경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4. 食生活 變化의 基本方向: 高級化, 多樣化, 簡便化 및 健康·安全指向

##### 4.1 實質消費支出과 相對價格間의 關係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선택 행동에 있어 소득 제약의 영향력은 약화된 다. 그렇다면 식품 선택 행동에 있어 가격요인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각 기간의 개별식품의 상대가격 변화추세와 실질소비지출의 추세간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상대가격의 변화가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검토하기로 한다.

상대가격의 실질소비지출 변화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해보기 위해 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증가, 불변, 감소)와 상대가격의 변화(저하, 불변, 상승)를 기준으로 식품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 중 상대가격의 저하와 실질소비지출의 증가로 나타난 그룹과 상대가격의 상승과 실질소비지출의 감소로 나타난 그룹은 실질소비지출의 변화가 가격변화와 정합적이므로 실질소비지출의 변화가 상대가격의 변화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반대로 상대가격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비지출이 저하하거나, 상대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그룹은 가격변화와 정합적이지 않으므로 실질소비지출의 변화를 상대가격의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는데도 실질소비지출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실질소비지출의 변화는 상대가격 변화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6>은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한 상대가격의 설명력 여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질소비지출 변화와 상대가격 변화의 관계를 정합적, 비정합적, 기타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식품의 품목수 비중과 그 기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sup>(13)</sup>

1976-1996년의 고찰 대상 전기간을 통해서 평균 42.4%가 가격과 실질소비지출의 움직

(12) 그러나 가격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실질소비지출의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3) <表 6>를 작성하는 데에 이용한 1인당 실질소비지출과 가격변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는 <附表 2>에 제시되어 있다.

〈表 6〉 期間別 實質消費支出과 價格變化間 關係의 推移

(단위: 품목수, %)

	가격과 정합적	가격과 비정합적	기 타	합 계
1976-1981년	41 (49.4)	22 (26.5)	20 (24.1)	83 (100.0)
1981-1986년	38 (42.7)	27 (30.3)	24 (27.0)	89 (100.0)
1986-1991년	38 (40.4)	37 (39.4)	19 (20.2)	94 (100.0)
1991-1996년	42 (38.5)	33 (30.3)	34 (31.2)	109 (100.0)
합 계	159 (42.4)	119 (31.7)	97 (25.9)	375 (100.0)

註: 1) ( )안의 수치는 전품목수에 대한 비중이다.

2) 기타 항목은 실질소비지출의 변화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품목이다.

임이 정합적이며, 31.7%가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의 26% 정도가 실질소비지출의 추세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질소비지출의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품목의 비중은 1991년까지 저하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전체 기간 평균보다 크게 높아져 식료소비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간별로 보면 1976-1981년에는 전체 품목수의 49.4%에서 가격과 실질소비지출의 움직임이 정합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율이 저하하여 1991-1996년 기간에는 38.5%까지 떨어지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격 변화가 해당품목의 실질소비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험을 보면 식품 선택에 있어 상대가격의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한층 낮게 나타났다. 1963년 이후 약 30년 동안 평균으로 보아 품목수의 37%에서 가격과 소비량의 움직임이 정합적으로 나타났으며, 1963-1968년 기간에는 50.4%가 가격 변화와 정합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율이 저하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28.9%만이 정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時子山ひろみ(1999, pp. 57-59)].

일본에 비하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가격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의 변화는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은 강해진다. 이제 한국도 절반 이상에 이르는 품목의 실질소비지출 변화가 소득 및 상대가격 변화 등이 아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설명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 4.2 食生活 變化의 4가지 範疇 區分

여기에서는 개별식품의 실질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한국의 식료 소비가 양적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 나타나는 식생활의 질적 변화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식생활의 변화방향에 관해서는 여러 범주가 제시될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변화의 방향을 '고급화,' '간편화,' '다양화,' '건강 및 안전지향' 등 4개 범주로 구분한다. 이들 4개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sup>(14)</sup>

먼저 '고급화'는 소득 상승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로서, ① 칼로리 단가가 낮은 식품군에서 높은 것으로의 이행(예: 곡류에서 축산물로), ② 동종의 식품군 중에서 보다 단가가 높은 것으로의 이행, ③ 동일 식품 중에서 보다 단가가 높은 것으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간편화'는 식사관련 가사노동의 간편화와 관련한 변화로, 구체적으로는 ① 가정 내에서 조리비용이 많이 드는 식품으로부터 적게 드는 식품으로의 이행, ② 조리식품의 이용과 외식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화'는 다양한 식품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로서 ① 종래의 쌀과 빵 중심의 주식 이외에 각종 면이나 시리얼류가 가미되는 등, 동종 식품의 소품목 대량소비로부터 다품목 소량소비로의 이행, ② 새로운 식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수입식품과 같이 지금까지 없던 식품의 도입, ③ 맥주나 소시지와 같이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진 식품의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안전지향'이란 고령화와 식생활의 성숙화에 따른 변화로서, ① 녹황채소나 해조류 등 건강에 좋은 식품의 증가, ② 동일식품 가운데 당분이나 염분 또는 지방의 지나친 섭취를 우려한 저당, 저염, 저지방식품이나 무농약, 저농약, 유기재배야채 등으로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가계조사』나 일본의 『家計調査』에서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sup>(15)</sup>를 제외하면 1개 식품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한 가지 규격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급화'의 ③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구분이 불가능하다. 또 '다양화'의 ②와 ③, 그리고 '건강·안전지향'의 ②도 별도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식품에 관해 브랜드의 다양화, 저당, 저지방, 무농약품으로의 이행과 같은 변동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었다. 통계자료가 이상의 4개 범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비된다면 '다양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14) 이들 4개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를 따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 時子山ひろみ(1994), 時子山ひろみ(1999) 등 참조.

(15) 한국의 경우 우유를 시판과 배달로 구분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수입으로 구분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것으로 생각된다.

4.3 食生活 變化의 範疇別 檢討

고찰 대상 기간 동안 개별 품목별 실질소비지출이 추세적으로 변동하는 품목에 한해서 앞서 정의한 4개의 범주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실질소비지출이 변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실질소비지출의 변화가 상대가격의 변화와 정합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도 상대가격의 변화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범주의 정의와 부합하는 한 4개의 범주로 구별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정은 자의적일 수 있다. 개별 품목 소비 변동의 범주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 아래의 <表 7>이다.

표에 의하면 한국의 1976-1996년의 전기간에 관찰되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건강·안전지향'에 의한 식품 소비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각각 27.8%, 17.0%, 14.9%, 10.8%를 접하여, 전체 품목수의 70.5%가 이들 4개의 범주 중 하나에 의해 실질소비지출의 변동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주의 설명력이 85%가 넘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경우 실질소비지출의 변동이 가격 변화로 설명되는 품목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表 8> 참조). 그러나 4개 범주의 설명력이 1976-1981년 기간의 69.8%에서 1991-1996년 기간에 와서는 72.8%까지 증가하고 있는 바, 최근으로 올수록 식품의 실질소비지출 변동에 있어 가격요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범주별 비중의 변화를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1976-1981

<表 7> 韓國 食料消費의 高級化·多樣化·簡便化·健康安全指向(1976-1996年)

(단위: 개, %)

	1976-1981년		1981-1986년		1986-1991년		1991-1996년		합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고 급 화(Q)	23	36.5	17	26.2	23	29.1	17	21.0	27.8
다 양 화(D)	11	17.5	15	23.1	10	12.7	13	16.0	17.0
간 편 화(C)	6	9.5	7	10.8	14	17.7	16	19.8	14.9
건강·안전(H)	4	6.3	6	9.2	8	10.1	13	16.0	10.8
기 타	19	30.2	20	30.8	24	30.4	22	27.2	29.5
합 계	63	100.0	65	100.0	79	100.0	81	100.0	100.0

註: 1) 기타에는 가격요인으로만 설명된다고 판단되거나 이상의 4개 범주로 설명되기 어려운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2) 전체변동품목수의 합계가 <表 6>의 그것과 다른 것은 동일 품목이 복수의 요인과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년에는 '고급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방향이다. 이로써 설명될 수 있는 품목수는 전체의 36.5%를 점한다. 이 시기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양질의 식료 소비를 지향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그 후 '고급화' 경향의 중요성은 점차 저하하여 1991-1996년 기간 동안 '고급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품목의 비중은 21.0%까지 떨어지고 있다. '고급화'를 대신하여 '다양화,' '간편화,' '건강·안전지향'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간편화'와 '건강·안전지향' 경향의 비중 증가가 뚜렷하다. '다양화' 요인에 의한 변화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뚜렷하여 1981-1986년 동안 전체 품목수의 23.1%를 설명한다. 그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간편화'와 '건강·안전지향'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1976-1981년의 기간 동안 각각 9.5%와 6.3%에 불과하던 양자의 비중이 1991-1996년의 기간 동안에는 19.8%와 16.0%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表 8>에 따르면 한국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식료 소비량이 안정화되고 성숙단계에 진입한 일본은 1990년대에는 고급화의 지향이 큰 폭으로 저하하여 9.6%에 머무는 대신, 다양화,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으로 소비량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품목의 비중이 각각 28.8%, 31.5%, 17.8%에 이르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도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고급화' 대신 '간편화'와 '건강·안전지향'이 중요한 식생활 변화의 방향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식생활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간편화' 경향의 강화이다. 우리는 앞서 비목별 음식비 구성의 변화에서 고찰 대상 전기간 동안 외식비의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증대하였음을 관찰한 바 있다. '간편화' 지향은 식사관련 가사노동의 절감과 관련한 변화의 방향이다. 가정 내의 조리비

<表 8> 日本 食料 消費의 高級化·多様化·簡便化·健康安全指向(1963-1997年)

(단위: %)

	1963- 1968년	1969- 1974년	1975- 1980년	1981- 1986년	1987- 1992년	1993- 1997년
고급화(Q)	34.8	25.8	19.0	15.7	14.1	9.6
다양화(D)	31.5	28.9	34.5	29.2	20.5	28.8
간편화(C)	18.5	17.5	23.8	22.5	30.8	31.5
건강·안전(H)	4.3	9.3	10.7	19.1	16.7	17.8
기 타	10.8	18.5	11.9	13.4	18.0	1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時子山ひろみ(1999, p. 67).

용에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조리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와 같이 조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식생활은 조리비용이 적게 드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 5.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1976-1996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식료 소비의 변화추세를 추적하고,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일본의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식료 소비량이 안정화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그보다 10년 뒤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식료 소비 수준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DES의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품목별로 보아도 실질소비지출의 증가추세가 나타나는 품목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격요인의 영향력 약화 정도는 동일한 시기 일본의 그것보다 약하지만 고찰대상 전기간 동안 식품의 실질소비지출 변동에 있어 가격요인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식료 소비의 안정화 경향을 보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초반까지는 '고급화'가 식료 소비 패턴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그 후 '고급화' 경향의 중요성이 점차 저하하는 대신 '다양화,' '간편화,' '건강·안전지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간편화' 경향의 강화에 따른 식료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장 주목되는 변화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식생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조리식품 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간편화' 경향은 앞으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한국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은 '고급화' 경향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 이룰수록 '간편화' 및 '건강·안전지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 변화에 있어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변화의 기본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는 식료 소비의 성숙단계로의 진입이다. 성숙단계의 특징으로는 첫째, 식료 소비 추세의 약화 내지 소멸, 둘째, 식료 소비 선택 행동에 있어 경제적 요인

의 소멸 내지 약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병행될 때 식생활 변화의 기본방향 분석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가격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에만 한정하였으며, 소득 제약 요인이 식료 소비 선택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품목별 식품 소비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되는 『도시가계조사』로는 이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용가능한 자료 사정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1

팩스: (02)886-4231

E-mail: chungyi@plaza.snu.ac.kr

성공회대학교 社會文化研究所 專任研究員

152-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1

전화: (02)2610-4295

팩스: (02)2610-4296

E-mail: leek801@mail.skhu.ac.kr

## 參 考 文 獻

- 사공용·최지현(1995): “소득증가에 따른 식품소비 변화분석,” 『농업경제연구』, **36. 1.**
- 유병서·신상수(1996): “도시가계의 외식수요분석,” 『농업정책연구』, **23. 1.**
- 이경미(1999): 『한국 식료시스템의 구조변화 연구 — 1975-90년의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일·황수철(1998): 『푸드시스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일본의 푸드시스템을 중심으로』, (사)농정연구포럼.
- 최지현·이계임(1996): “식품소비구조분석,” 『농촌경제』, **19. 1.**
- 최태동·설현(1992): “소비자의 식생활실태 및 식품구매행태분석,” 『식품유통연구』, **9.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물가연보』 1978, 1987.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_\_\_\_\_ (1998): 『물가연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료수급표』, 각년도.

吉田泰治(1996): “食料消費にあらわれた變化—マクロデータによる分析,” 食料・農業政策  
研究センター, 『食料白書』1996年版, 農山漁村文化協會.

時子山ひろみ(1999): 『フードシステムの經濟分析』, 日本評論社.

\_\_\_\_\_ (1994): “食生活の變化と消費者の食品選擇,” 高橋正郎編, 『わが國のフードシステム  
と農業』, 農林統計協會.

時子山ひろみ・荏開津典生(1991): “品目別食品選擇の變動要因,” 『食品經濟研究』, 第19  
號.

\_\_\_\_\_ (1998): 『フードシステムの經濟學』, 齒樂出版株式會社.

荏開津典生・時子山ひろみ(1990): “食生活變化と食料消費構造,” 加藤讓編 『食品産業論』,  
農林統計協會.

秋谷重男・吉田忠(1988): 『食生活變貌のベクトル』, 農山漁村文化協會.

佐伯尚美(1996): “見直し迫られる現代の食生活,” 『家計經濟研究』, 第31號, 家計經濟研究  
所.

日本總務廳: 『家計調査』(全國全世帯) 各年度.

\_\_\_\_\_ : 『小賣物價統計調査』.

Tokoyama, H., and F. Egaitsu(1995): “Major Categories of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 Japan 1963-1991,” *Oxford Agrarian Studies*.



〈附表 2〉 1人當 實質消費支出과 價格趨勢와의 關係

1. 1976-1981년

상대가격 실질 소비지출	하 락		추세 없음	상 승	
감 소	밀가루 명태 멸치젓			보리쌀 국수 팔 콩 콩치 어개통조림 마른멸치	새우젓 굴비 참기름 참깨 단무지 고구마
추세 없음	배 고등어 복어 설탕 미역 가지 호박			참쌀 복숭아 굴 소금 생강 소주 감자	양파 콩나물 파 배추 무
증 가	식빵 감귤류 밤 감 딸기 과실통조림 수박 콜라 사이다 갈치 조개류 가자미 물오징어 달걀	소시지 닭고기 고추장 화학조미료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 たく 맥주 두부 토마토 김 오이	쌀 참외 분유 돼지고기 마늘 당근 상치	라면류 떡 당면 포도 조기 우유 쇠고기 청주 양배추 도라지 시금치	



2. 1981-1986년

상대가격 실질 소비지출	하 락		추세 없음	상 승	
감 소	국수 밀가루 조기 복어 청주		쌀 새우젓 맥주	보리쌀 팥 소금 소주 가지	
추세 없음	콩 참쌀 명태 가자미 갈치 꽂치 분유	닭고기 설탕 위스키 탁주 파	과실통조림	감귤류 배 고등어 굴비 콩나물 당근 감자	도라지 상치 시금치 토마토
증 가	당면 식빵 라면류 참외 복숭아 사과 포도 밤 딸기 커피 콜라 사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생강 마늘 화학조미료 식용유 배추 무 양배추 양파 미역 김 땅콩	떡 달걀 우유 고추장 참깨 고추	수박 감 어개통조림 어개가공품 간장 참기름 케첩 된장 고구마 오이 단무지 호박 두부	

3. 1986-1991년

실질 소비지출	상대가격		추세 없음	상 승	
	하	락			
감 소	밀가루 보리쌀 콩 가자미 소시지 설탕	화학조미료 콩나물	쌀 달걀 미역	딸기 복어 고등어 명태 굴 갈치	조개류 쇠고기 たく 토마토 감자
추세 없음	마른멸치 생선묵 돼지고기 식용유 배추	두부 시금치	포도	복숭아 참외 소주 양배추 오이	당근 파 가지 고구마 도라지
증 가	라면류 식빵 과실통조림 사과 밤 배 감 커피 과채류음료 어개통조림 어개가공품 마른오징어 새우젓	물오징어 조기 햄 닭고기 케첩 된장 청주 맥주 망종 김 무 단무지 산나물	사이다 콜라 굴비 분유 우유 마늘 고추장 간장 참기름 호박	팥 국수 당면 참쌀 떡 감귤류 수박 꽂치 멸치젓 고추 참깨 위스키 상치	버섯 양파 꽃고추

4. 1991-1996년

실질 소비지출	상대가격					
	하 락		추세 없음		상 승	
감 소	당면 바나나 갈치 맛살 어개통조림 소시지 마요네즈	땅콩	쌀 콜라 사이다 생강 소금 화학조미료 오이	도라지 커피크림	팔 밤 복숭아 굴 복어 새우젓 마른멸치	고추 타주 미역 가지 시금치 배추 무우
추세 없음	사과 두유 물오징어 마른오징어 꽂치 어포 명태	달걀 햄 케첩 설탕 참깨 청주	라면류 밀가루 멸치젓 마늘 단무지 벌꿀		떡 식빵 콩 과실통조림 조개류 갈치 우유	닭고기 간장 두부 고구마
증 가	보리쌀 참쌀 국수 감 수박 감귤류 과채류음료 보리차 기타차 고등어 가자미 어개가공품 조기	굴비 생선묵 치즈 분유 요구르트 돼지고기 위스키 감자 양파 풋고추 호박 콩나물 토마토	커피 명란젓 카레 식용유 소주 산나물		배 참외 포도 딸기 쇠고기 된장 고추장 맥주 상치 버섯 이유식	

〈附表 3〉 實質消費支出 變化的 4가지 範疇의 區分

1. 1976-1981년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감귤류	Q	0.332	0.316	갈치	P	0.060	0.842
된장	C	0.321	0.798	라면류	D	0.059	1.110
맥주	Q	0.293	0.775	가자미	P	0.055	0.860
콜라	D	0.279	0.745	도라지	*	0.047	1.075
사이다	D	0.268	0.860	수박	Q	0.044	0.933
소시지	D	0.267	0.618	간장	C	0.043	0.768
딸기	Q	0.215	0.760	마른오징어	D	0.041	0.965
물오징어	P	0.207	0.942	두부	P	0.037	0.606
고추장	C	0.199	0.450	쇠고기	Q	0.035	1.139
식용유	D	0.198	0.703	마늘	Q	0.034	0.970
우유	Q	0.193	1.128	시금치	H	0.025	1.080
밤	P	0.189	0.591	조기	Q	0.024	1.231
닭고기	Q	0.172	0.729	쌀	Q	0.024	0.963
분유	C	0.142	1.019	당면	D	0.019	1.385
식빵	D	0.133	0.922	포도	Q	0.010	1.128
당근	D	0.130	1.018	명태	Q	-0.036	0.821
달걀	Q	0.126	0.869	콩	Q	-0.036	1.516
청주	Q	0.124	1.137	멸치젓	*	-0.037	0.900
떡	C	0.124	1.142	팥	Q	-0.041	1.326
탁주	P	0.113	0.695	참기름	P	-0.050	1.859
토마토	H	0.112	0.740	마른멸치	P	-0.056	1.162
김 (dried)	H	0.107	0.882	참깨	P	-0.056	2.438
돼지고기	Q	0.105	1.007	밀가루	Q	-0.083	0.891
상치	Q	0.103	0.959	국수	Q	-0.083	1.224
참외	Q	0.100	0.994	새우젓	P	-0.115	1.511
감	H	0.091	0.642	퐁치	P	-0.121	1.051
화학조미료	D	0.091	0.667	고구마	P	-0.152	1.560
고추	*	0.089	0.825	어개통조림	P	-0.158	1.056
양배추	C	0.087	1.062	굴비	P	-0.194	1.726
조개류	P	0.083	0.846	보리쌀	Q	-0.253	1.101
오이	P	0.077	0.896	단무지	Q	-0.348	1.079
과실통조림	D	0.062	0.894				

註: Q는 '고급화,' C는 '간편화,' D는 '다양화,' H는 '건강·안전지향'이다.

2. 1981-1986년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어개가공품	D	0.353	1.264	마늘	Q	0.068	0.735
케찹	D	0.326	1.227	생강	P	0.068	0.708
단무지	C	0.269	1.187	된장	C	0.062	1.274
국수	D	0.246	1.200	사이다	D	0.062	0.729
땅콩	P	0.237	0.918	멸치젓	P	0.059	0.895
고추장	C	0.230	0.981	달걀	Q	0.056	0.976
어개통조림	D	0.227	1.264	간장	C	0.056	1.126
우유	Q	0.179	1.025	오이	D	0.054	1.160
식빵	D	0.150	0.836	고추	*	0.050	1.050
커피	D	0.146	0.661	참기름	Q	0.047	1.178
소시지	Q	0.146	0.879	고구마	*	0.038	1.116
포도	P	0.138	0.923	당면	D	0.038	0.828
수박	Q	0.127	1.195	참깨	Q	0.037	1.011
돼지고기	Q	0.126	0.858	화학조미료	D	0.034	0.902
떡	C	0.125	1.018	호박	H	0.033	1.199
라면류	C	0.112	0.902	두부	H	0.031	1.207
양배추	D	0.108	0.759	감	H	0.022	1.335
복숭아	Q	0.104	0.832	조개류	Q	0.020	0.890
식용유	D	0.102	0.903	마른멸치	P	0.019	0.897
물오징어	P	0.098	0.897	국수	D	-0.002	0.882
배추	P	0.098	0.609	쌀	D	-0.007	1.018
딸기	P	0.097	0.941	청주	Q	-0.032	0.937
마른오징어	P	0.097	0.886	복어	Q	-0.035	0.942
미역	H	0.089	0.776	조기	*	-0.038	0.888
콜라	D	0.087	0.728	소금	H	-0.045	1.140
참외	Q	0.083	0.799	소주	P	-0.051	1.083
굴	Q	0.081	0.638	팥	P	-0.052	1.251
김 (dried)	H	0.079	0.894	밀가루	C	-0.058	0.884
밤	P	0.077	0.936	가지	P	-0.062	1.497
무우	P	0.076	0.662	새우젓	*	-0.065	1.041
사과	P	0.074	0.880	맥주	Q	-0.106	0.998
양파	P	0.070	0.772	보리쌀	Q	-0.154	1.673
쇠고기	Q	0.069	0.840				

3. 1986-1991년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어개통조립	D,C	0.412	0.708	참기름	Q	0.050	1.024
햄	Q	0.331	0.667	사이다	D	0.046	0.966
과채류음료	D	0.316	0.888	김 (dried)	H	0.046	0.729
어개가공품	D,C	0.254	0.708	굴비	Q	0.044	0.978
위스키	Q	0.227	1.104	식빵	C	0.041	0.923
커피	D	0.218	0.486	상치	Q	0.039	1.154
마른오징어	P	0.212	0.721	참깨	Q	0.035	1.119
당면	D	0.185	1.094	닭고기	Q	0.031	0.857
케찹	C	0.181	0.774	간장	C	0.029	0.958
된장	C	0.167	0.948	새우젓	P	0.029	0.727
산나물	H	0.161	0.769	꽃고추	Q	0.025	1.229
과실통조립	D	0.160	0.625	고추	*	0.016	1.083
고추장	C	0.158	1.013	국수	D,C	0.010	1.082
맥주	P	0.151	0.929	팥	*	0.009	1.065
조기	Q	0.121	0.809	달걀	H	-0.014	0.961
콩치	H	0.111	1.120	콩	*	-0.015	0.944
사과	Q	0.110	0.706	설탕	H	-0.019	0.789
무우	P	0.107	0.732	가자미	Q	-0.021	0.862
콜라	D	0.098	0.968	미역	C	-0.021	1.033
감귤류	Q	0.094	1.053	쌀	C	-0.027	1.001
감	Q	0.090	0.947	콩나물	Q	-0.029	0.871
라면류	C	0.087	0.699	토마토	P	-0.030	1.215
물오징어	P	0.085	0.769	쇠고기	P	-0.031	1.343
청주	P	0.079	0.880	감자	P	-0.033	1.788
배	Q	0.079	0.947	소시지	Q	-0.034	0.772
단무지	P	0.078	0.764	たく	P	-0.041	1.320
호박	H	0.074	1.021	갈치	P	-0.053	1.462
땅콩	P	0.074	0.714	복어	Q	-0.056	1.176
버섯	Q	0.068	1.159	굴	P	-0.063	1.362
수박	Q	0.065	1.129	보리쌀	Q	-0.066	0.842
우유	Q	0.064	1.027	소금	H	-0.068	1.098
떡	C	0.062	1.476	밀가루	C,D	-0.076	0.835
분유	C	0.061	0.998	명태	Q	-0.078	1.351
양파	*	0.060	1.189	조개류	P	-0.089	1.795
참쌀	Q	0.059	1.106	고등어	P	-0.092	1.267
밥	P	0.055	0.750	딸기	P	-0.097	1.168
마늘	*	0.051	0.989	화학조미료	H	-0.144	0.882
멸치젓	*	0.050	1.165				

4. 1991-1996년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범주 구분	지출추세	가격변화
위스키	Q	0.230	0.621	호박	H	0.031	0.889
감	P	0.153	0.797	생선목	C	0.029	0.921
가자미	P	0.146	0.752	참기름	P	0.025	0.797
굴비	Q	0.144	0.900	콩나물	P	0.020	0.897
포도	H	0.144	1.223	식용유	D	0.020	0.962
수박	P	0.127	0.881	상치	Q	0.018	1.116
분유	C	0.120	0.842	혼합조미료	P	0.016	0.799
고등어	H	0.117	0.662	콜라	D	-0.012	0.951
치즈	Q	0.115	0.803	미역	P	-0.014	1.106
명란젓	Q	0.110	0.966	맛살	Q	-0.017	0.828
참외	Q	0.108	1.112	가지	P	-0.023	1.063
어깨가공품	C	0.107	0.850	시금치	P	-0.026	1.127
딸기	Q	0.090	1.280	생강	C	-0.028	1.005
배	Q	0.089	1.111	새우젓	C	-0.028	1.430
토마토	H	0.086	0.927	마른멸치	P	-0.032	1.731
커피	D	0.080	0.951	고추	C	-0.035	1.156
과채류음료	D	0.075	0.842	오이	C	-0.036	1.005
돼지고기	P	0.074	0.681	도라지	C	-0.039	1.023
참쌀	H	0.068	0.899	팔	P	-0.041	1.123
조기	P	0.065	0.877	소금	H	-0.042	0.961
산나물	H	0.063	0.975	쌀	D, C	-0.043	0.987
카레	D	0.061	0.994	당면	C	-0.046	0.839
이유식	C	0.060	1.349	마요네즈	D	-0.046	0.869
고추장	C	0.057	1.352	땅콩	H	-0.051	0.938
쇠고기	Q	0.056	1.028	배추	C	-0.054	1.246
기타차	D	0.056	0.926	밤	P	-0.055	1.471
요구르트	D	0.049	0.919	굴	P	-0.060	1.371
국수	D, C	0.048	0.942	탁주	Q	-0.061	1.067
감귤류	P	0.047	0.928	소시지	Q	-0.066	0.833
맥주	*	0.046	1.122	무우	C	-0.069	1.717
버섯	Q	0.046	1.240	커피크림	H	-0.071	0.966
풋고추	Q	0.043	0.829	사이다	D	-0.074	0.953
양파	P	0.042	0.678	화학조미료	H	-0.083	1.026
감자	P	0.040	0.675	복어	Q	-0.086	1.375
보리쌀	H	0.039	0.722	복숭아	P	-0.093	1.661
보리차	P	0.038	0.882	바나나	Q	-0.137	0.713
된장	C	0.037	1.329	어깨통조림	Q	-0.385	0.850
소주	*	0.036	1.022				